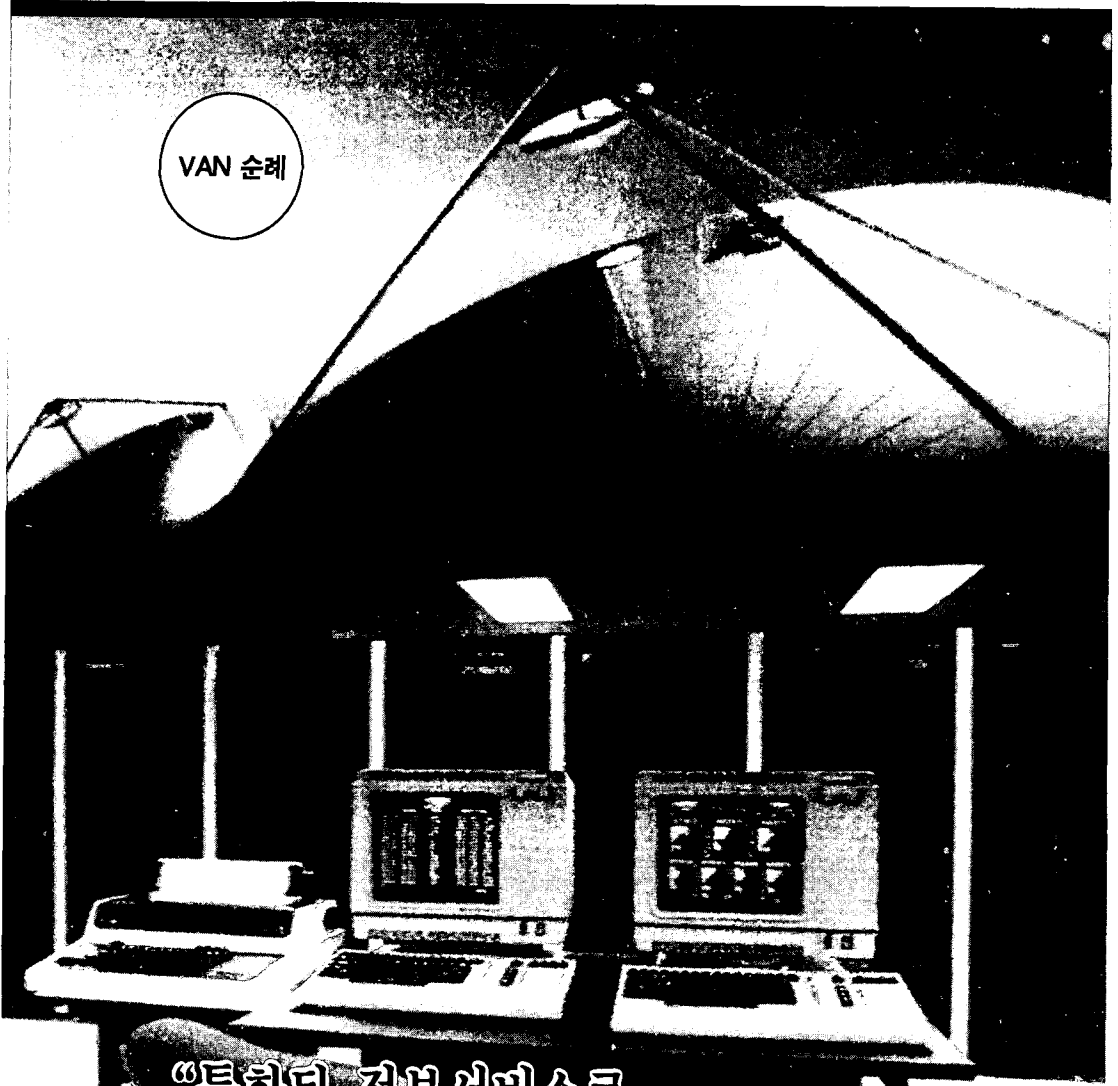


VAN 순례



“특화된 정보서비스로 정보사회 구현에 기여할 터”

Inforserve - (주)코리아네트의 종합정보통신서비스

코리아네트는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따르는 정보통신속구의 확산에 부응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통신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종합 시스템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인티그레이터(Network System Integrator)로서 1989년 3월 설립되었다.

코리아네트의 주사업분야는 정보통신서비스와 네트워크구축사업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은 자체 네트워크(Koreanet[®])의 운영을 중심으로 데이터전송서비스 (DTS), PC 통신서비스, 유동 VAN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트워크구축사업은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의 기획, 설계로부터 장애분석까

지 일련의 연속과정을 처리하는 사업이다.

또 코리아네트는 패킷교환장비와 각종 LAN 장비등의 하드웨어와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회사의 성장과정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989년 3월 주식회사 코리아네트 설립.
- 1989년 8월 인포서브 시범서비스 개시.
- 1989년 9월 인포서브 유료서비스 개시.
- 1990년 11월 정보통신시스템 도입(Solbourne 5E/900).
- 1990년 12월 정보통신역무제공업 등록(제5호)
- 1991년 4월 코리아네트® 서울-부산간 패킷 교환망 구축.
- 1991년 7월 코리아네트® 서울-광주간 패킷 교환망 구축
- 1992년 7월 코리아네트® 서울-대구-인천-전주간 패킷교환망 확장.
- 1992년 9월 인포서브 주니어(PC통신 서비스) 개시.
- 1993년 11월 Client/Server 방식의 시스템 구축.

현재 전국적 정보통신서비스, 클라이언트서버 방식도 구축중

PC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은 주컴퓨터로 Solbourne 5E/900과 SUN 4/280 두 대의 기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집중식 형태를 갖추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과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약 150명의 이용자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 확보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현재 시스템 및 네트워크 환경을 Client/Server 방식으로 새로이 구축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통신처리만을 전담할 시스템을 구입하고, 복잡하면서 Multi-Vendor 제품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제품을 일원화시

켜 가고 있다.

코리아네트에서 제공하는 PC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서울 및 인근지역은 공중전화망에 접속하면 되고,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지역은 자체 네트워크인 코리아네트를 이용하며, 기타 지역은 공중 데이터통신망인 Hinet-P와 DNS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LAN 상의 이용자는 Internet Address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폐쇄이용자 그룹(CUG)서비스로 성장, 현재 12,000명의 회원 확보

1989년 9월 자체 개발한 ITEX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인포서브는 1993년 11월 약 12,000명의 가입자에게 PC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4번째의 PC통신서비스로 자리를 잡았다.

서비스 초기부터 유료서비스를 제공한 인포서브는 89년 540명의 이용자로 시작하여 '93년 삼보컴퓨터의 TGBBS의 독립 운영으로 그 이용자가 줄기는 했으나, 현재 약 12,000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인포서브는 시작단계부터 다른 사업자와는 다른 마케팅 전략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즉, 천리안, 하이텔, 포스서브 등이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중심으로 그 성장을 이루었다면, 인포서브는 폐쇄사용자그룹 개발로 그 성장을 이루었다.

폐쇄사용자그룹이란 20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인포서브 서비스내에 그들만의 독자적인 PC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능으로 독자적인 메뉴구성 과 그룹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번호, 비밀번호에 의해 철저히 관리·운영되고 있다.

인포서브는 폐쇄사용자그룹의 개발에 있어 많은 기록을 갖고 있다. 현재는 삼보컴퓨터가 운영하고 있으나, 89년 삼보컴퓨터의 대고객 서비스 전략의 일환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TGBBS는 국내 최대의 폐쇄사용자그룹이었다. 89년 250명의 회원은 삼보컴퓨터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될 때

까지 약 14,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최대 규모의 CUG였다.

이 밖에 국내 최장수 폐쇄사용자그룹인 건강치과협의회(약칭 건치회)는 89년부터 계속 인포서브와 그 발전의 길을 함께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DB는 12가지, 증권정보가 중심

인포서브의 주요기능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통신서비스 기능은 기존의 우편이나 전화, 팩시밀리 등으로 교환하던 메시지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 전자회의, 이야기마당(대화), 토론기능으로 나눈다.

둘째, 정보교환서비스는 다양한 통신욕구를 지닌 PC보유자간에 메시지 교환은 물론 정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교환등이 가능한 서비스로 전자게시판, 공개자료실, 동호회, 폐쇄사용자그룹으로 기능을 나눈다.

세째는 정보검색서비스로 증권전산의 증권시황정보, 업도명투자분석, 현대투자 핫라인 등 증권데이터베이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동아일보, 비데오테이프 출간정보, 서울리서치, 의료보험정보 등 12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92년 청소년 겨냥한 「인포서브 주니어」개발

1992년 코리아네트는 청소년을 겨냥한 새로운 상품을 기획, 개발하였다. 역시 인포서브와 같은 9월에 개통한 인포서브 주니어는 그 대상을 20세 이하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국내유일의 서비스이다.

인포서브 주니어의 특색은 동호회 활동에 있다. 현재 14개의 동호회가 개설되어 활동중에 있으며, 인포메이션 동호회는 500명을 넘는 많은 회원을 갖고 있어 웬만한 작은 규모의 사설 BBS 규모를 능가하고 있다. 14개 동호회에 등록되어

있는 게시물 및 데이터는 45,000건을 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개설을 희망하고 있는 동호회도 6개가 있어 인포서브 주니어의 보물창고와 같은 중요한 영역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가입비없이 월10,000원의 정액제

코리아네트의 PC통신서비스 요금은 월 10,000원의 정액제이며, 전문 정보사용에는 별도로 정보제공자가 정한 정보이용료를 사용시간만큼 지불해야 한다.

인포서브 주니어는 현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양 서비스의 가입비는 별도로 받지 않고 있다.

두 서비스의 총사용현황은 월 평균 200,000시간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신규 가입자의 추세를 고려할 때 월 10%정도씩 사용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사용시간중 동호회활동 및 폐쇄사용자그룹의 사용시간이 전체의 43%, 대화 15%, 공개자료실 12%, 데이터베이스 11%, 기타 19%의 사용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서버 환경구축과 동시에 DB에 집중투자, 화상정보도 계획

'93년 말 시스템 및 네트워크 환경을 중앙집중식 형태에서 Client/Server 형태의 서비스체제로 환경을 재정비하고, 천리안, 하이텔, 포스서브에 비해 열세에 놓인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게임등과 같은 상품개발 및 '93년 개발한 화상정보의 제공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표 1) 인포서브 초기화면

InfoServe	주메뉴(MAIN/TOP)	KOREANET Inc.
1. 고객지원센터	2. 핫라인서비스	
3. 전자우편	4. 게시판	
5. 공개자료실	6. 이야기 마당	
7. 동아리	8. 지정게시판/기업광장	
9. 여론/토론	10. 인포서브 기획코너	
11. 뉴스/기상/스포츠	12. 생활/문화/가정	
13. 증권/금융/경제	14. 주문/예약/홈쇼핑	

(표 2) 인포서브 시스템 구성도

